

◇ 한국과학사학회 창립 30주년 회고

학회 30년을 돌아본다

송 상 용

1960년 7월, 학생들의 붕기로 독재정권이 쓰러지고 제2공화국이 태어나려는 무렵이었다. ‘단군 이래의 자유’를 구가하며 온갖 욕구가 분출했고 사회 전체가 건잡을 수 없이 들떠 있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고 하면 될 것같은 막연한 믿음이 퍼져 있었다. 이런 어수선한 와중에서 한국과학사학회는 세상에 나왔다.

나는 그 전해 9월 문리대 화학과를 나와 과학사를 한다고 철학과에 학사편입해 있었다. 가까이 모신 은사 李鍾珍선생에게 끌려 과학사학회 모임에 갔다. 창립총회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내가 처음 참석한 것은 창립기념 학술강연회였는지도 모른다.

초대 간사 林采源선생의 기록에 따르면 7월 9일에 있는 발기인 모임에는 13분이 참석했다. 발기인 가운데 60대는 金斗鍾, 李德鳳선생 두 분 뿐이었고, 50대가 權寧大선생, 30~40대가 康晰榮, 李東植, 이종진, 金泰鳳, 嚴章鉉(의학)선생, 그리고 金然昌(생물학), 임채원, 趙馨遠(약학), 崔正奉선생은 20~30대였다.

7월 16일 서울대의대 구내다방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30여명이 참석했다. 강석영선생의 개회선언과 임채원선생의 경과보고에 이어 김두중선생을 임시의장으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전형위원들이 평의원을 뽑았고 김두중, 이덕봉선생이 각각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발기인이 아니면서 평의원으로 들어간 분은 崔允植, 洪以燮, 朴益洙, 韓昇璉(한의학)선생 뿐이었다. 임채원, 조형원, 최정봉 세분이 간사로 임명되었다.

학회 창립을 이끈 분은 말할 것도 없이 김두중선생이었다. 김선생은 해방직후 서울대의대에 醫史學教室을 만들어 원로교수로 군림하셨고 대한의사학회를 창립해 윤일선선생에 이어 회장으로 계셨다. 김선생은 역사에 관심있는 과학자들을 규합하신 것 같다. 고대의 이덕봉(생물학), 연대의 張起元(수학), 그리고 문리대의 최윤식(수학), 권녕대(물리학), 김태봉(화학), 이종진(화학), 李敏載(생물학)선생이 모여들었다. 김태봉선생은 조카, 이종진선생은 김태봉선생의 매부였다. 한국사에서는 일찍이 「朝鮮科學史」를 내신 홍이섭선생이 참여하셨고 과학사를 전공으로 내세우며 저서를 내고 강의를 하시던 박익수선생도 빠질 수 없었다.

창립준비는 내과의면서도 역사에 관심이 많아 김선생의 사랑을 받던 강석영선생과 문리대 사학과를 나와 의사학교실에서 연구하고 있던 임채원선생이 주로 맡으셨던 듯하다. 간사에는 임채원선생 외에 조형원, 최정봉씨가 들어갔다. 최정봉(鎭煥)씨는 내 대학동기로서 치대를 나와 의사학교실에 들어가려다 뜻을 못이루었는데, 지금은 미국서 개업하면서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

초창기 회원에는 김두중선생의 의과대학 동료 尹日善, 金東益, 羅世振선생이 들어 있고 공학자로는 羅益榮(공업화학), 李範純(공업화학), 韓鳳熙(금속공학), 과학자로는 韓浚澤(물리학), 朴同玄(물리학), 鄭英昊(생물학)선생이 보인다. 젊은 세대는 임채원선생 주변의 金基守(시양사학), 蔡秉瑞(고고학), 金順福(서양사학), 李申煥(건축학)선생이 참여했다.

문리대 화학과를 마치고 고교교사를 하면서 한국과학사를 독학하시던 全相運선생과 그 후배로 과학사에 뜻을 두었다가 과학자가 되고만 朴澤奎교수도 창립회원이다. 전상운선생은 홍

이섭선생의 격려를 받으며 자전거로 전국을 누비고 계셨고 박택규교수와 나는 50년대 후반부터 이종진, 박익수선생과 과학사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학회는 창립총회에서 과학사강좌 설치 및 과학박물관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대학 총장들에게 건의문을 보내는 의욕을 보였다. 2년 뒤에는 「科學文化史」, 「科學史話」 집필계획도 마련했다. 행사로는 첫째 11월에 창립기념 학술강연회를 가졌고 1963년까지 해마다 총회 때 학술강연회를 열었다. 내용은 鄉藥救急方, 近世朝鮮의 의료보호사업과 救荒對策 같이 그럴 듯한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일반을 대상으로 한 개괄적인 것이었고 생물과학의 미래상, 암과 유전처럼 과학사와 거리가 먼 것들이 섞였다.

나는 1962년 강연회에서 ‘과학과 휴머니즘’이란 제목으로 얘기하는 영광을 얻었는데, 당시 내가 한국휴머니스트회 간사였기 때문에 임채원선생이 부탁하신 것이다. 그날 도미하신 조형원간사의 후임으로 박택규교수와 내가 간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름만 걸쳤을 뿐 임채원간사를 도와서 한 일은 전혀 없었다.

학회 사무실은 처음 서울대의대 의사학교실에 두었다가 1962년 말 국립과학관 보급과로 옮겼다. 1963년 11월 총회를 끝으로 학회는 긴 동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된 데는 의사학교실의 변화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회장 김두중선생은 1960년 숙명여대 총장에 취임하셨고 이어 간사 임채원선생도 의사학교실을 떠나 숙대 사학과에 전임으로 가셨다. 원래 서양사가 전공인 임선생은 독일사로 방향을 바꾸셨다. 김두중선생의 후임 李英澤선생은 어떤 까닭인지 창립 때도 끼지 않으셨었다. 이선생은 강의만 하셨을 뿐, 교실을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조교도 없고 잡지도 들어오지 않았다. 김두중선생은 의사학교실의 침체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셨지만 이제 팔다리가 되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학회가 잠자고 있는 동안 몇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전상운선생의 「韓國科學技術史」가 南宮浩씨가 만든 科學世界社에서 발간되었다. 10년 가까운 각고의 결정이었다. 출판기념회에서 축하를 한 홍이섭선생은 『이제 내 책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극구칭찬하셨다. 홍선생이 해방후 한국사상사로 가신지 20년만에 과학훈련을 받은 후계자가 탄생한 것이다. 그래도 학회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무렵 과학을 전공했으나 역사를 하기로 결심한 네사람의 젊은이가 미국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吳鎮坤(화학), 李炳勛(생물학), 朴星來(물리학)교수와 나였다. 오교수는 전북대 조교수로 자리잡고 있었고, 이교수는 고교교사, 박교수는 朝鮮日報를 거쳐 中央日報 과학부 기자였고, 나는 외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며 막 대학원을 수료했다. 이교수는 대학동기라 인사는 있었고 나머지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이 가운데 박교수와 내가 1967년 가을 미국으로 떠났다.

박교수는 캔저스대 과학사학과에, 나는 인디애나대 과학사·과학철학과에 입학했다. 이듬해 전상운선생이 블루밍턴으로 나를 찾아 오셨다. 전선생은 뉴욕주립대(올버니) 연구원으로 1년 머물며 케임브리지에서 MIT의 시빈과 「韓國科學技術史」의 영문판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 책의 초벌번역에는 이병훈교수와 나도 참여한 바 있었다. 전선생에게서 박교수가 캔저스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박교수는 2년만에 서양과학사로 석사학위를 받고 하와이대 사학과로 옮겼고 나는 1969년 일단 귀국했다. 돌아가려던 계획은 좌절되고 나는 다음해 석사학위증을 우편으로 받았다. 2학기가 시작한 뒤에 도착한 나는 서울대사대에서 박익수선생의 과학사 강의를 대강함으로써 데뷔했다.

1970년 정월 초하루 김두중선생께 세배 드리고 나오는 길에 임채원선생과 박택규교수와 나

는 차를 마셨다. 이 자리에서 임선생은 이제 과학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학회 일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서류보따리를 넘겨 주셨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학회 간사를 도맡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학회를 되살릴지 막막하기만 했다. 우선은 내 취직이 급한 문제였다.

나는 서울대 교양과정부에 과학사 강좌를 넣는 운동부터 했다. 은사이신 閔錫泓부장의 호의로 과학사 강좌가 개설되었다. 나는 이 강의를 맡았고 외대와 고대에서 자연과학개론을 과학사 중심으로 가르쳤다. 쉬울 줄 알았던 취직은 났듯없듯하면서 안되었다. 전상운선생이 권하시는대로 쌍문동 전선생 뒷집으로 이사해 아침저녁으로 만났다. 공릉동에서 강의가 끝나면 그 옆 원자력연구소를 찾아 원자력위원으로 계시던 박익수선생께 나와 학회의 앞날에 대해 의논드렸다.

1971년 3월 東京大 과학사·과학철학과의 中山박사가 친구 전선생을 찾아 서울에 왔다. 과학사 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학회 주최로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8년만에 처음 열린 행사였다. 이듬해 7월 우리는 학회 재건총회를 열기로 했다. 회원들을 수소문해서 알리고 동지가 될 만한 분들을 규합했다. 전주로 오진곤교수를 찾아가 입회원서를 받았다. 이제는 과학자로 주저앉은 이병훈교수를 가입시켰고 과학교육계의 신예 朴承載교수도 포섭했다.

뭔가 사회의 주목을 끌 필요가 있었다. 전선생이 아이디어를 내셨다. 한국과학의 쟁점을 토론하는 시리즈를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때마침 파리에서 直指心諦要節이 발견되어 떠들석했다. 그래서 첫 토론회는 금속활자를 다루기로 했다. 창립 12돌기념을 내세워 서양사학자 車河淳선생을 특별강연에 모시고 사학자 손보기, 서지학자 千惠鳳선생을 초청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도하 각 신문이 크게 보도했던 것이다. 총회에서는 박익수, 전상운선생을 부회장으로 뽑았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학사학회는 거듭 태어났다.

회의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명함을 내미는 신사가 있었다. 電波科學社の 孫永壽사장이었다. 며칠뒤 차를 보내셨기에 출판사로 찾아갔더니 손선생은 과학사문고를 내자고 제의하셨다. 나는 범위를 넓혀 교양과학문고를 하자고 했다. 박택규, 이병훈, 박승재교수와 함께 편집기획위원회를 짰다. 나는 과학사·과학철학 담당이었지만 사실상의 주간이었다. 이로부터 5년 동안 나는 韓明洙주간의 도움을 얻어 70권의 책을 만들었다. 現代科學新書는 백권이 넘도록 나 혼자 기획을 하다시피 했다. 3분의 1 이상을 과학사로 채웠다. 이 과정에서 나는 많은 필자를 발굴했고 그들을 과학사학회에 끌어들었다. 金容雲선생 같은 분이 그 대표다. 이때 이래 손선생은 많은 과학사 책을 번역하셨고 과학사학회 행사에 적극 참여해 음양으로 도우셨다.

한국과학사의 쟁점 토론회는 瞻星臺(73, 79, 81), 地轉說(75), 龜船(76)으로 이어지면서 그때마다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1973년에 시작된 첨성대논쟁은 198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속되어 학계를 떠들석하게 했다. 한국논쟁사상 최대라는 이 싸움은 매스 미디어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또 토론회를 통해 한국사학자 몇분을 회원으로 얻게 되었다. 李殷晟, 俞景老, 玄正畷선생이 七政算 연구에 착수하신 것도 그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서양과학사 쪽에도 핑계를 만들어 잦은 행사를 조직했다. 코페르니쿠스 탄생 500주년(73), 산소발견 200주년(74), 양자역학 50년(76), 아인슈타인 탄생 100주년(79), 쿤의 과학사서술과 인접과학(80), 다윈 100주기(82) 등 발표회는 과학자와 다른 분야 학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밖에도 의학사의 제문제(77), 과학사와 과학박물관(78), 전통사상과 현대과학(80), 과학사의 위치(82)를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1974년 제14회 국제과학사학회가 일본에서 열렸다. 나는 아시아재단에서 여비를 얻어 참가했다. 때마침 京都大연구원, 早稲田大 교환교수로 일본에 계셨던 전상운, 金容駿선생도 오셨다. 한국의 첫 국제회의 참석이었다. 이 좋은 기회에 세계적인 학자들을 서울로 끌어올 계획을

세웠다. 니덤, 히버트, 쿤, 웨스트폴, 크렌즈버그 등을 전보로 초청하고 미국대사관의 여비지원도 약속받았다. 그러나 때마침 8.15저격사건이 일어나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때를 전후해 테오도리데스(프랑스), 블랜피드(미국), 라흐만(인도) 등 세 과학사학자가 서울을 다녀갔다. 1977년 에딘버러회의에는 나 혼자 가서 국제과학사·과학철학연합(IUHPS)에 가입신청을 구두로 해 놓았다.

1976년에 김용준선생이 주도한 과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전상운선생, 박승재교수 외에 철학자 소흥렬교수와 과학저널리스트 玄源福선생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외국재단의 지원을 얻어 과학사 중심 자연과학개론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우리는 여러차례 모여 윤곽을 잡았으나 내가 제때 연구계획서를 못만들어 일을 이루지 못했고 그 때문에 나는 김선생께 오해까지 받았다.

1977년은 특기할 만한 해였다. 한국과학사 전공으로 하와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성래교수와 하버드대 이학박사이다 프린스턴대 과학사·과학철학프로그램을 수료한 김영식교수가 귀국, 외대와 서울대 화학과의 전임이 된 것이다. 두 대학에서 마지막 기회를 놓친 나는 뜻밖에 성균관대의 전임이 되었다. 한꺼번에 세사람의 과학사 전임교수가 태어난 것이다. 이제 과학사교수를 가진 대학은 성신여대(전상운), 전북대(오진곤)를 합쳐 다섯으로 늘어났다. 막강한 원군을 얻었으니 나의 외로운 싸움은 끝난 셈이었다.

박성래교수와는 하와이대로 연락이 되어 문통이 있었고 이미 지전설 토론 때 보내온 논문을 내가 대독한 일도 있었다. 전상운선생이 행정 때문에 바빠지기 시작한 때라 박교수를 후계 스타로 내세워 잘 부려 먹었다. 그는 삼국시대부터 개화기까지 한국과학사의 어떤 문제든지 요리해 냈고 중형무진 활약했다.

김영식교수는 이종진선생을 통해 소문은 들었지만 귀국 직후 연구실로 찾아가 반갑게 만났다. 김교수를 화학으로 뽑은 대학당국이 제동을 걸어 1년 뒤에야 내가 맡고 있던 서울대 과학사강의를 넘겨 줄 수 있었다. 김교수는 조용히 일을 펴 나갔고 2년 뒤에는 중국과학사로 두번째 학위를 받았다.

같은 때 전상운선생이 京都大에서 구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또 시인 辛萬敎차관이 과학기술처 과장으로서 서섹스대 과학사·과학사회학과에 유학, 이학석사 학위를 얻었다. 학회는 전상운, 신만교, 박성래 세분의 학위축하회를 열고 기념패를 선물했다.

70년대에는 또한 세사람의 동지가 추가되었다. 金明子교수가 화학에서 과학사로 넘어왔고 하버드대 과학사학과에 입학허가를 받고도 부군을 따라 MIT화학과로 갔던 高慶信교수가 과학사 연구에 착수했다. 사학과 출신으로 중국천문학사 석사논문을 쓴 金基協교수가 성대에서 과학사 강의를 하다가 啓明大 사학과에 부임했다. 80년대에는 인디애나대 과학사·과학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李成奎교수가 귀국해 강의를 나누어 맡았다.

1975년 김두중회장은 미국에 머무시는 동안 사의를 표명하셨고 15년만에 처음으로 회장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제1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원로 권녕대선생이 회장으로 뽑혔고 김두중선생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권선생은 4년 재임하셨고 그 다음에는 과학사를 주전공으로 하는 박익수, 전상운선생으로 회장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창립회원 강석영선생이 학회를 떠나시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박익수선생 이후는 회장임기 2년이 관례화되었다.

1977년 학회는 全國歷史學大會에 가입했다. 이 대회는 역사관계 학회들이 해마다 한군데 모여 벌이는 잔치인데 여기 들어간 것은 과학사가 사학계의 인정을 받았음을 뜻한다. 이때 이래 학회는 科學史部會를 만들어 봄모임을 대체했고 1982년에는 대회 주관 학회로서 성신여대에서 큰 행사를 치렀다.

1980년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가입했다. 科總의 회원이 된 것은 과학사가 과학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을 뜻한다. 학회는 科總의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적지 않은 재정보조를 받는 길을 열어 주었다. 우리는 또한 사회과학 학회들의 모임인 韓國社會科學協議會에도 들어가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학회는 1979년 科總의 「韓國科學技術30年史」편찬을 맡아 박익수, 金貞欽, 현원복, 송상용, 박성래회원이 집필했다. 1980년에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백과사전편찬부 과학기술사분과위원회에 전상운, 유경로, 김용운, 고경신, 김기협회원이 참여했다. 또한 같은 해에 학회는 產學協同財團의 연구비를 얻어 科學文化財 조사사업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전상운, 金聖三, 김정흠, 羅逸星, 南天祐, 박성래, 박익수, 朴興秀, 유경로, 이은성, 李泰寧회원이 연구원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천문, 기상분야의 과학문화재를 답사, 연구했다. 최종 보고서는 1984년에 완성되었고 연구한 여러 점이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1970년대는 박성래교수가 이른 바 ‘과학사운동’을 요란하게 벌여 회원을 확장하고 과학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학회지도 못내고 행사만 자주 여는 학회는 공허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과학사학회지」는 1979년에야 창간되었다. 차츰 계간으로 발전시킨다는 희망에서 제1권 제1호로 시작했으나 10년이 넘는 오늘까지도 1년에 한번 겨우 내고 있을 뿐이다. 논문의 질은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열심히 만들어 호평을 받아 왔다.

1980년 5.17쿠데타로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는 대학에서 쫓겨났다. 군정에 반대한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에 서명한 것이 죄였다. 서명의 과학담당 조직책은 김용준선생이었고 나는 이를테면 하수인이었다. 南天祐, 金淑喜, 張會翼, 毛惠晶, 최동식 등 다섯분의 서명을 받았다. 대부분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훈계방면되었는데 김선생과 나는 사표를 써야 했다. 과학계 서명자 일곱은 다 우리 회원이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뒷얘기까지 한다면 80년대 후반 김영식교수는 서울대 교수서명을 주도했고 박성래교수도 중국행을 포기하고 외대 민주화성명에 서명했다.

해직으로 말미암은 불이익 가운데는 과학문화재 연구원, 백과사전 편찬위원까지 사퇴한 것이 포함된다. 나는 70년대에도 정신없이 뛰었지만 이제 학회 일에 전념했다. 세미나를 조직하고 학회지를 만들고 전국역사학대회를 주관했다. 가장 큰 일은 1981년 韓日科學史세마나를 꾸민 것이다. 한양대 전통과학연구소와 공동주최한 세마나는 한국과학재단과 日本學術振興會의 후원을 얻었고 일본에서 원로 薀內교수를 비롯한 네분 과학사학자들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다. 세미나는 경주 관광과 침성대 3차토론으로 이어져 더욱 흥미로웠다. 제2회 한일과학사 세미나는 1983년 京都에서 열렸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일곱분이 갔고 유경로, 전상운, 박성래 그리고 내가 부부동반이어서 일본표현으로 부인에게 효도했다.

1981년에는 부쿠레슈티에서 국제과학사회의가 있었다. 전상운, 박성래, 김영식 세분이 가기로 했는데 내가 문제였다. 시험삼아 신청한 여권이 뜻밖에 나왔다. 우리는 비자 없이 루마니아 입국에 성공했고 처음으로 발표도 했다. 여기서 정성철, 문병우 등 북한학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학회가 IUHPS에 정식 가입하는 경사가 있었다. 한국은 33번째 나라였고 B범주로 들어갔다.

1982년 나는 과학사에 뜻을 둔 젊은이들을 훈련할 생각으로 과학사워크숍을 시작했다. 기성학자, 대학원생, 여러 대학 학부 학생들이 모여 연대순으로 토픽을 맡아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다. 성신여대에서 시작한 워크숍은 나중에는 장소를 옮겨 다니며 11회까지 2년 동안 계속했다.

1982년 나는 20년 해 온 간사를 사임했다. 처음 10년은 아무것도 안했지만 후반 10년은 많

은 시간과 정력을 바친 것이 사실이다. 과학아카데미 간사를 40년 한 폰트넬의 기록에 도전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고 물러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우리 학회에서 간사는 명예는 없더라도 군의 참모총장처럼 꽃이다. 나는 간사로 일한 기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후임은 박성래, 김기협교수가 임명되었다. 나는 학회지 편집인은 계속 맡았다.

박성래교수는 제대로 일할 틈도 없이 교무처장직을 맡게 되어 간사직을 사실상 떠났고 1984년에 임명된 김영식교수가 혼자 맡다시피했다. 1985년부터 김영식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김영식간사는 학회의 분위기와 운영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일을 많이 벌이고 조직과 선전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는 행사를 최소로 줄이는 대신 내실을 다지는 방향을 택했다. 발표는 전국역사학대회와 가을모임 두번으로 고정되었다. 그 결과 회원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경비가 크게 절감되었다. 내가 할 때는 돈을 많이 끌어 왔으나 다 써버렸는데 보조금, 기부금 등을 아껴 기금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현명한 방향전환이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운영방식을 뒷받침한 것이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협동과정의 탄생이다. 처음에 화학과 교수로 부임한 김교수는 서서히 과학사교수로서의 자리를 굳힌 다음 1984년 호기를 포착, 협동과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우선 석사과정으로 시작해 1988년에는 박사과정이 설치되었고 독자적인 입학전형도 관철되었다. 협동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장희익교수의 공이 컸고 서양사학과의 李仁浩교수와 철학과 교수들도 많이 도왔다.

협동과정에는 이공계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대부분이 학부에서 김영식교수의 강의를 듣고 길을 바꾼 사람들이었다. 뒤에는 멀리 의대, 농대,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까지 왔다. 이미 10여명의 석사가 배출되어 유학하거나 진학했다.

유학생으로는 김기윤(오클러호머), 김미경(UCLA), 정명식(프린스턴), 최혜식(오클러호머), 임경순(함부르크), 박희주(멜번)님 등이 있고 이필렬(베를린, 런던), 김제현(위스칸신), 김동원(하버드), 조숙경(런던), 이호중(낭트)님이 귀국했다. 이밖에도 확인되지 않은 몇사람이 더 있고 유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역사를 취미 또는 부업으로 하는 과학자들의 관심은 지속적이지 못해 바닥이 나면 열이 식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학회 운영이 어려워졌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석사논문, 학기논문이 발표와 학회지를 메꾸어 현상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새 세대가 아니었다면 학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뻔했다.

학회 사무만 해도 나 혼자 우표 붙이고 봉투 쓰고 우체국으로 달려가던 때와는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 대학원생들이 일을 나누어 쉽게 해 내고 있다. 특히 간사보를 맡은 成映坤, 홍성욱, 유지영님의 수고가 많았다. 현재 간사에는 이성규, 김기협, 성영곤교수가 추가 임명되어 김교수를 돕고 있다.

학회 사무실은 70년대 후반에는 성대의 내 연구실을 연락처로 썼고 국립과학관으로 옮겼다가 1984년부터 서울대 화학과에 고정되었었다. 1989년 박익수선생의 호의로 한국과학저술인협회 옆에 독립사무실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회장은 과학사가 주전공이 아니지만 중요한 업적을 내신 李殷晟, 俞景老, 李燦선생이 차례로 맡으셨다. 정통 과학사학자들이 주역이 됨에 따라 박성래교수가 염려했던 애머처리즘은 극복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마추어들이 소외감을 맛보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할 것 같다.

김영식간사 치하에서도 세번 큰 행사가 있었다. 1985년 버클리에서 제17회 국제과학사회의에

는 9명이 대거 참석했고 1989년 함부르크, 뮌헨에서 열린 제18회 회의에는 5명이 갔다. 그리고 그 중간인 1986년에는 서울에서 제3회 한일과학사 세미나가 열렸다. 일본에서 여섯분이 왔고 백제권 관광 또한 성공적이었다. 이때는 일본통 이성규교수의 활약이 컸다. 내년에는 다시 일본서 제4회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다.

가을모임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 관례가 된 듯하다. 춘천, 대구를 거쳐 이번에는 전주에서 모인다. 다음은 대전 쪽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두서없는 회고담을 늘어 놓으며 학회의 앞날은 밝다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